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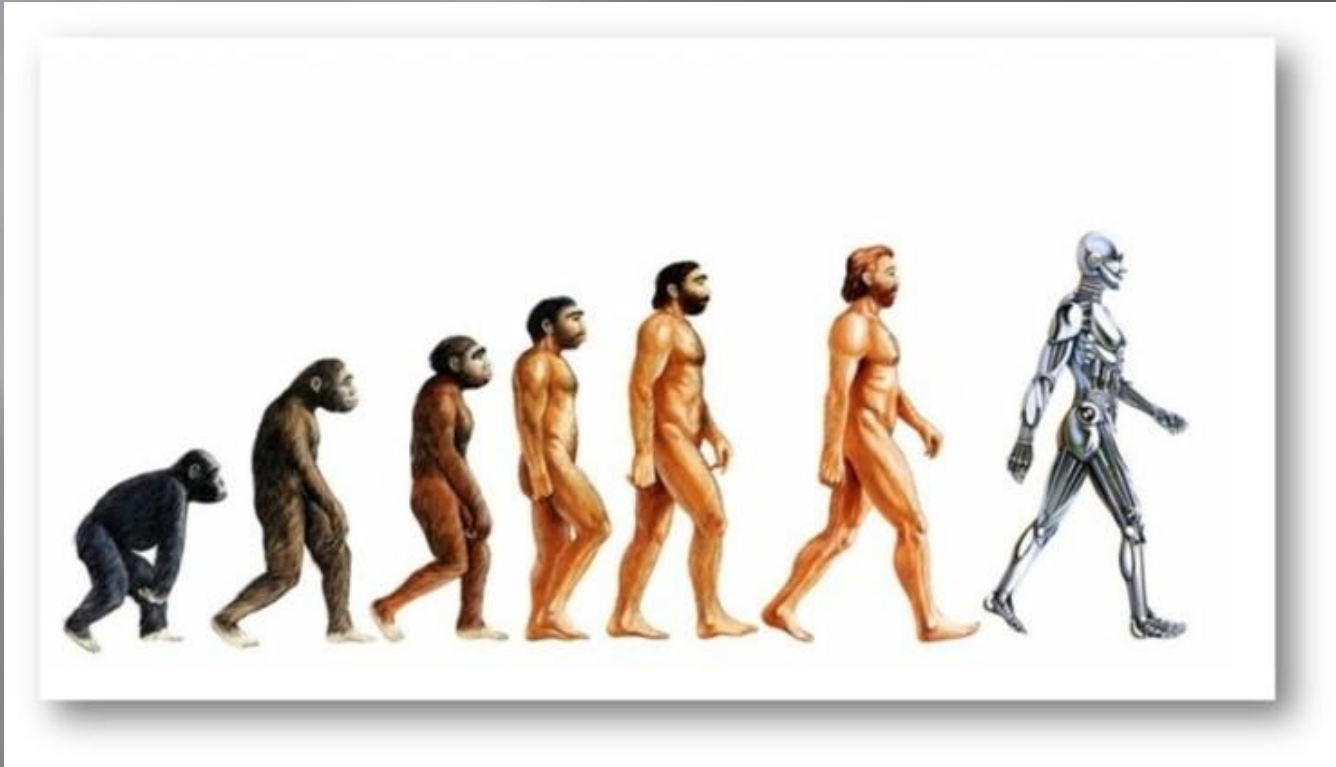
빅 픽처, 왜/어떻게?

전환의 의미

- ▣ 문명사적 전환 - AI 시대
- ▣ 세계질서의 전환
 - 미국의 신아메리칸 드림 Vs 중국의 중국몽
 - ‘도깨비 방망이’와 ‘오뎅이’
 - ‘인도 아태 전략’과 일대일로
- ▣ 기후 변화
- ▣ 경제질서의 전환 - 글로벌 경제통합과 신민족주의 경향/ 하에예크 슈페터 케인즈의 제3라운드
- ▣ 삶의 양식 전환
- ▣ 국가모델의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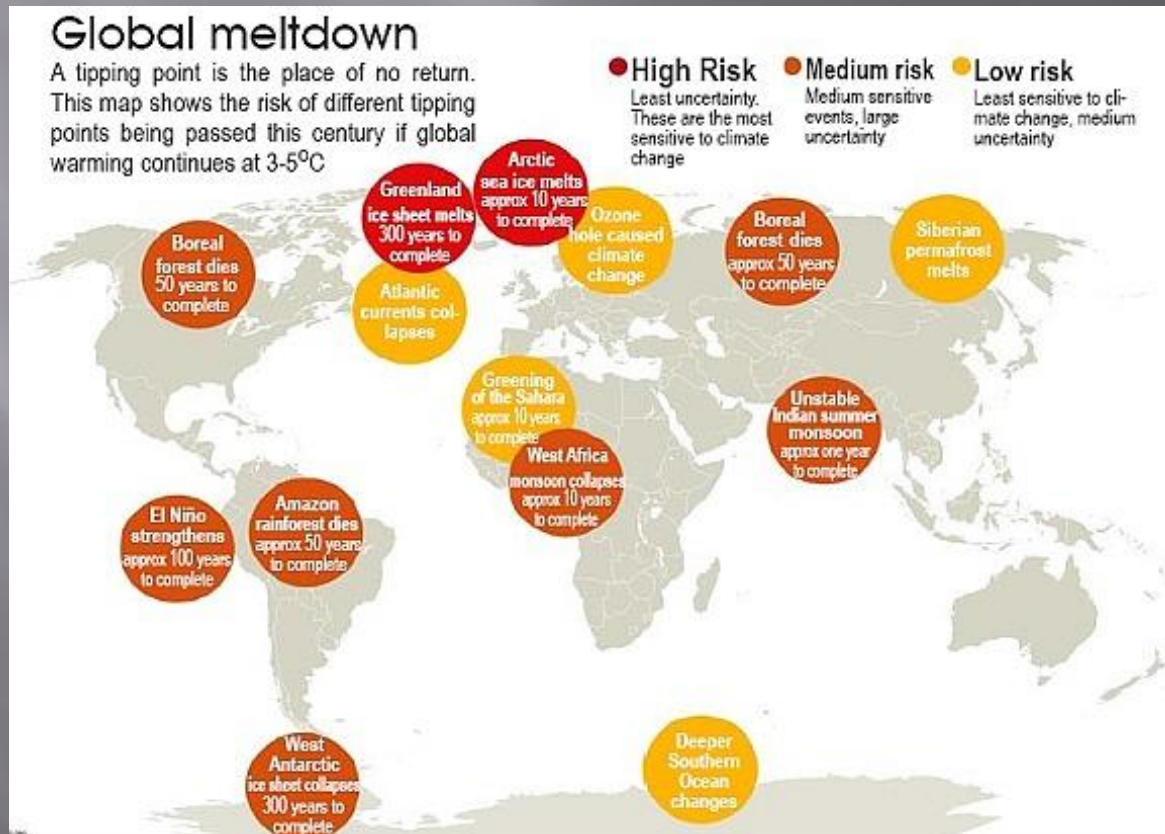
AI 시대의 개막

- ▣ AI 시대의 개막 - “40억 년 지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‘지식의 나무’가 비유기물질 안에 심어지다



기후변화의 임계점 접근

- 기후변화의 임계점 접근 - 2016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평균 400ppm(지구온도 2도 상승 임계점)



글로벌 거버넌스

- ▣ 1만년 전의 지구와 현재의 지구
 - 500만/3000개 , 70억 200개
- ▣ 기아/전염병/전쟁의 극복과 협력의 질서
- ▣ 세계화/기후변화와와 글로벌 거버넌스
- ▣ '지구 조국'과 '세계시민'
- ▣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의 건강성과 문화적 개방성에 대한 요구의 갈등
- ▣ 신국가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
- ▣ 국가의 이익과 세계이익의 조화 문제
 - 세계책임국가

삶의 양식 변환

- ▣ “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산다”
- ▣ 노동은 이제 그만?
- ▣ 불안한 실존과 끝없는 행복 열망
- ▣ 80세 노인이 100세 부모를 모신다
- ▣ 한 사람과 어떻게 한 세기를 함께 살아?
- ▣ 무기력해지는 연금과 보험
- ▣ 삶의 자율성과 의존성의 패러독스

국가 모델의 전환

▣ 큰 정부/작은 정부, 유능한 정부/무능한 정부 논쟁

▣ 알프레드 마샬

“정부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다. 정부가 맡은 일을 최고의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단 이를 위한 전제는 정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특별히 잘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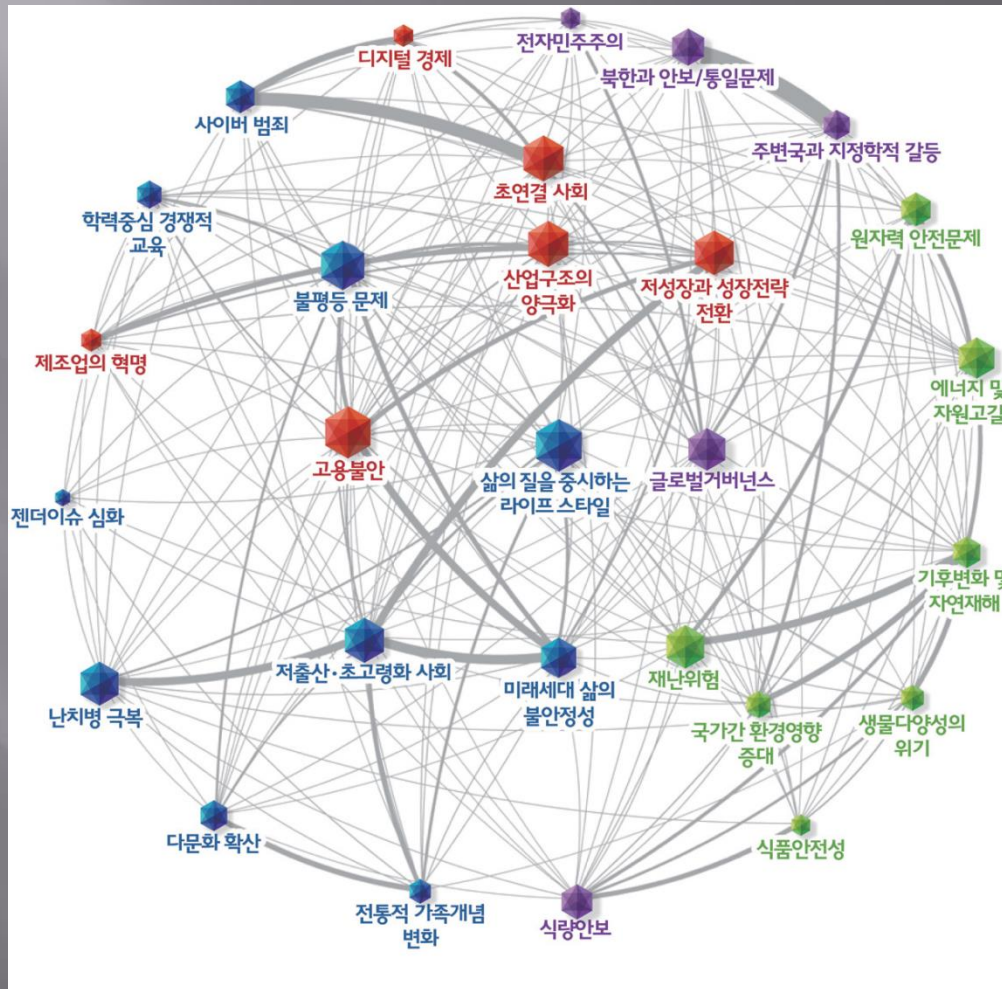
* DO와 DON'T

경비원/유모/상인

과도기의 혼란과 고통들

- ▣ G2의 헤게모니 경쟁과 갈등, 다자 질서의 복잡한 갈등 구조
- ▣ 경제적 양극화와 늘어나는 상대적 박탈감
- ▣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발호
- ▣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성
- ▣ 난민 문제
- ▣ 새로운 바이러스와 판데믹
- ▣ 에너지 안보와 물부족
- ▣ 반인권 비정상국가 문제

이슈는 복합적이고 연결되어 있다



거대 복합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

- ▣ 현재 제기된 이슈들 가운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은 거의 없음.
- ▣ 거시적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문제를 위치시키고 이에 대한 가치체계(Meme)를 정립한 후 집단지성을 창출할 협력 작업(collaboration)과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들을 도출해야 함.
- ▣ Big Picture를 먼저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각 부분들의 전략을 다른 부분들과의 연관 관계 하에서 수립하는 project management가 필요.

핀란드의 미래지향 국정운영

의회 미래위원회

- 분야별 미래계획과 미래정책 심의
- 새도우 캐비닛 기능

정부의 미래관점에서 정책 검토

- 선거공약의 미래계획 관점 검토 조정
- 6개월 단위 의회보고

Think Net

- 대학의 미래연구 연계
- 정당의 미래지향 정책 기능

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는?

- ▣ 빅 픽처 없이 개별 이슈 중심 국정 운영
-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지 못함
- ▣ 초기에 제기된 이슈들도 숙고와 심의 없이 제기 되는 경향 - 탈원전, 공공일자리와 비정규직, 최저임금, 자사고 폐지 등
- ▣ 국정기획위의 보고도 5년에만 집중, 50년을 보는 과제 거의 없음.

야기될 문제들

- ▣ 이슈 중심 접근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킨다
 -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
 - ▣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
 - ▣ 풍선 효과 또는 역기능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
 - ▣ 정책이 실패할 경우 재건하기가 어렵다
- ▶ 5년이 아닌 50년을 생각하는 국정과제와 정책 설계가 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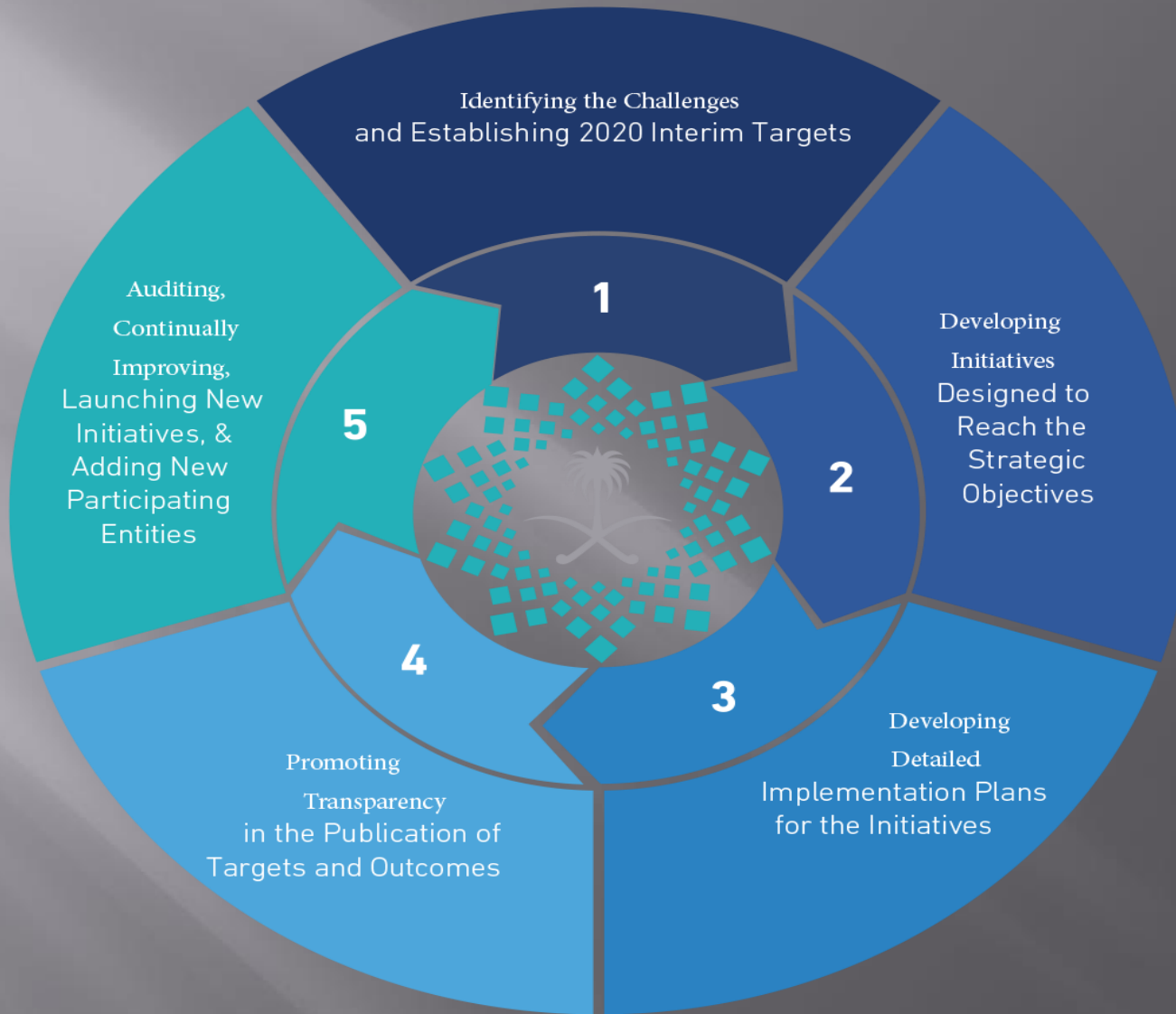
미래 전략에 입각한 국정 운영의 방법

- ▣ 정부와 의회, 학계의 미래 전략 연구를 “각자 따로, 그러나 함께”의 포맷으로 바꾸어야 함.
- ▣ 현재 미래 연구 단위는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미래부에 일부 있고, KDI가 연구기관으로서는 중심이 되어 있음. 각 정책 부서 별 또는 연구기관별로 미래 전략을 연구하지만 산발적이고 영향력도 약함. 학계는 산개. 일부 기업 연구소에서 수행.
- ▣ 각 분야에서 정책 개발을 할 때 미래 전략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, 미래 전략 연구 단위를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. 일정한 중복성은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함.

- ▣ 국회 내 미래연구원 창설을 계기로 조속히 국회 내 미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할 필요.
- ▣ 미래위원회가 각종 미래전략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촉진제 및 매개체 역할을 수행. 주요 입법에 대한 미래 이니셔티브
- ▣ 각 분야의 미래 연구는 각 분야에서 특수한 쓰임새를 갖지만, 특히 이 분야는 연구의 네트워킹화가 매우 중요함. 정부 차원에서도 네트워킹하고, 국회 차원에서도 네트워킹 해야 함.

미래전략 연구 네트워크





Operating Model of the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